



GP 선교회 김동건 배영혜 기도편지 63 (2022 부활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사도행전 3장 14-15절).”

GP 한국선교회 대표

코로나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원자들을 훈련/파송하고 있습니다. GP소속 410명의 선교사가 42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3월말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상황 등이 허락되면 7년 만에 GP전체대회를 방콕에서 11월에 열 예정입니다.



(본부훈련)



(파송 임명장 수여)

방콕열린파키스탄난민교회

OPR교회는 방콕에 개척된 파키스탄 기독교 난민교회입니다. 적은 수지만 계속해서 호주 등 제3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찌라차이전도사가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처가 협조하고 사역차량이 노후되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태국인예배도 모이고 있습니다.



(방콕난민교회)



(파키스탄 기독교 난민 지원)



(한국의 봄)

가족 배선교사는 썩을 कै며 한국의 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이는 Harvard 의대 장학생으로, 며느리 정인이는 법대에 함께 진학합니다. 윤경이는 VCU 키네틱아트 졸업반입니다. 하경이는 숭실대(영문학) 1학년을 시작했습니다. 무익한 종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GP한국선교회 대표를 연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지치지 않고,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과 재정과 인프라들을 잘 발굴하여 세계선교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 방콕 OPR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큰 위로와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찌라차이전도사가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난민들을 잘 섬겨나가도록, 제3국으로의 이주에 선한 길을 주시고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구 구치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이 예수 소망가운데 잘 견디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선교사들과 선교지 성도들이 죽고 중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셔서, 복음의 큰 진보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순교적 각오로 사역에 임하게 하소서

2022년 4월 15일 김동건 배영혜 요한(정인) 윤경 하경 올림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7 지피한국선교회, 05810 전화 (02-443-0883, 010-9593-2881)

이메일 kdkbyh@hanmail.net 카카오톡 ID ilovebyh77 지피선교회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090818-990 GP(김동건,배영혜)